

## 畏齊 李端夏 婦人 大禮服(圓衫)에 대한 研究

배상경

水原大學校 生活科學大學 衣類織物學科

### A Study on the Historical Characters and Textile Conservation of Mrs. Lee, Dan-ha's Wonsam

Sang Kyoung Bai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 Suwon, Korea*

□ ABSTRACT : This study was carried out of the historical characters and textile coservations for Mrs. Danha Lee's Wonsam. As the textile material was silk, dry cleaning method was suggested. The solvents for dry cleaning were n-hexane, n-decane, and benzene.

During the second cleaning process, the dry soap(HI-TECH, 120:1, volume ratio) was added to the mixed solvents. The reaction's temperature was 20°C, and the reaction's time was 30 minuutes. It seemed to be a gift for her from the Royal Family because of the attachment of pheonix hungbae. This wonsam was decorated symmetrically by gold weaving yarn, the basic fabric was green silk satin with glorius letters and floral patterns. It was made on the 17th C and the oldest thing among them.

#### 1. 서 론

외제 이단하 부인 대례복인 원삼은 중요민속자료 제4호로 지정된 것이다.

민속자료란 의, 식, 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습, 관습과 이에 사용되었던 의복, 기구, 가옥이 포함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중요민속자료는 229건으로 복식은 55건이다.

복식문화재는 동물성 및 식물성 섬유로 되어 있으며 염료를 사용하거나 금박을 이용하기도 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염의 경화, 섬유의 취화, 염료의 변퇴 및 광선 및 온·습도 변화에 의한 물리화학적 손상과 곤충,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일단 손상된 복식문화재는 원형복원이 불가능해지며 오염물의 제거시 섬유재질에 따라 사용되는 세제 및 처리방법이 달라지므로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적인 보존방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삼에 대한 오염물 세척 및 부분보수작업과 전·후면 흉배 2점을 배접하여 향후 발생할 취화현상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키고 이 원삼이 지닌 복식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 2. 보존처리과정

### 2.1 원삼의 보관상태

원삼은 다른 지정유물들과 함께 후손의 집에 한지에 싸여 나무함에 보관되어 있었다. 관리자의 유물보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았으나 보관시설이 열악하였으며, 일반관객들의 관람으로 인해 유물이 훼손되고 있었다.

원삼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며 그 부분을 후손들이 무명실로 변형시킨 상태였다. 전면 흉배는 후면 흉배보다 15cm 밑에 부착되어 있었으며 오염이 심한 상태였다.

### 2.2 보존처리

보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섬유재질에 따른 세척용제를 선택하여 오염을 제거하였으며, 손상되거나 터진 부분에 유

사한 천을 이용하여 견봉사로 보수하였으며, 층군의 살균처리 후 염색의 변퇴를 억제하고 습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축연신비닐필름으로 유물을 포장하여 99% 이상의 N<sub>2</sub> gas로 충전 밀폐시켰으며, 오동나무 상자를 제작하여 유물을 보관하였다.

#### 2.2.1 세척 및 보수

원삼은 견직물로 되어 있었으며 부분적으로 큼직이 짜여져 있었다. 그리고 옷의 형태를 잡아주기 위해서 표리면 사이에 창호지로 백비를 했기 때문에 건식세척에 의한 방법만이 가능했다.

염료의 탈색 유무를 알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탈염실험을 실시하였다. 상온의 증류수와 0.5% dry soap 용액(건식세탁용 계면활성제 Hi-Tech/n-hexane)을 스포이드로 떨어뜨려 밑에 깔 blotting paper에 염료가 묻어 나는지 관찰한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세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섬유의 소실, 찢어짐, 마찰을 최대한 방지하고, 세척과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하여 원삼을 polyethylene 그물망에 썼다.

첫단계로 n-Hexane에 의한 dry cleaning을 상온에서 1회 실시 후 건조시키고 원삼의 변형과 금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다.

2단계로 n-Dxcane + Cyclohexane = 5:3:2 (weight ratio)혼합액에 오염물 세척을 다시 2회 실시한 후 건조하여 이상 유무를 다시 확인하였다. 2단계 세척처리 후 원삼의 파손부위와 후손들이 무명실로 꿰멘 부위를 해체 후 견봉사로 바느질을 하였다.

이상의 처리과정에서는 지성오염의 제거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단백질, 혈흔, 수용성

오염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dry soap을 사용하여 다시 한번 건식세척을 실시하였다. 옷감 안팎 사이에 들어 있는 창호지는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 섬유가 수소결합되어 종이상태를 유지하지만 수성세탁으로 인한 물의 침투가 발생되면 기존의 수소결합이 파괴되어 새로운 수소결합을 형성하므로 기존 한지의 모양이 변하게 된다.

3단계 세척방법은 n-Decane + Cyclohexane = 1:1(weight ratio)의 혼합용제에 dry cleaning soap Hight-Tech를 120:1(vol. ratio)로 혼합하여 실시하였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금사와 형태가 훼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30분 처리한 후 n-Decane에 2회 행구고 두꺼운 백색 타월을 이용하여 여분의 액을 제거하였다.

각 단계별로 처리한 후에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원삼이 깨끗해졌다.

원삼에 부착되었던 흉배들은 재질이 매우 약화된 상태로 바탕천의 중앙 부위가 일부 소실되었고, 후면 흉배는 사로 배접이 되어 있었으나 전면 흉배는 배접이 안된 상태였으므로 흉배 바탕천과 색상이 비슷한 한지로 배접한 다음 후면 흉배는 기존에 부착된 사를 다시 부착시켰고 전면 흉배는 후면 흉배의 사와 문양 및 재질이 비슷한 천의 확보가 불가능하



사진 2. 세척 전 원삼의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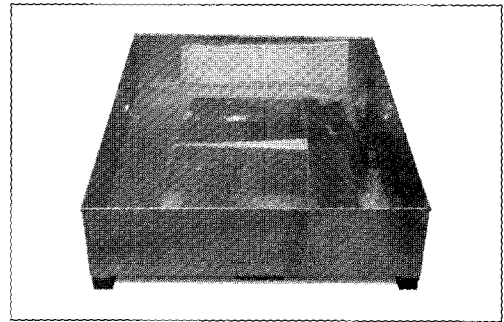


사진 3. 원삼의 세척 장면



사진 4. 원삼의 보존 처리 후 전면 상태



사진 1. 세척 전 원삼의 전면



사진 5. 원삼의 보존 처리 후 후면 상태

여 한지배접으로 그쳤다. 세척과 수리 복원이 끝난 후에 흉배를 위치를 바로잡아서 부착시켰다.

### 2.2.2 훈증처리

오염물 세척과 보수가 끝난 유물은 미생물과 생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훈증처리를 실시하였다. 한지로 포장하여 훈증 약제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두께 0.3mm 비닐로 유물을 완전 피복하여 공기의 유통을 차단하였다. 훈증제 (Ethylene oxide+Methyl bromide)를 투입하여 가스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닐접합부위를 특수테이프로 완전 밀봉시켰다.

훈증하는 동안 훈증가스의 농도를 60ppm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별로 농도를 체크하였으며 60ppm 이하일 경우 재투약하였으며 7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 2.2.3 이축연신 필름을 이용한 밀폐포장

섬유류 유물은 생물에 의한 피해가 심하므로 이를 방지함과 함께 습해를 막기 위해서 기밀성이 우수한 Polyethylene 이축연신필름으로 완전 밀폐포장하고 내부에 불활성 질소 가스를 적정량 투입하여 외부로의 습기침투, 복식유물의 화학적 변화로 인한 염료의 변퇴, 충균과 먼지의 유입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 2.2.4 보 관

섬유질 유물은 광선, 온도, 습도, 공기 중의 유해 가스, 먼지, 충균 등에 의해 섬유의 취화, 염료의 변색 등으로 유물이 손상을 받게 되어 협소한 공간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접힌 부위가 약화되어 손상되므로 적절한 공간에서의

보관이 필요하다. 주로 층해에 잘 견디는 오동나무상자를 뚜껑형으로 제작하고 보관 및 전시, 관람을 용이하게 하였다.

## 3. 결과 및 고찰

### 3.1 원삼의 형태 및 특징

이단하는 인조 27년(1649)에 출생하여 현종 3년(1662)에 문과에 등과하고 숙종조에 대제학을 거쳐 숙종 12년(1688)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지냈고 숙종 15년에 졸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리 봉산리에 이단하가 좌의정 당시 착용했던 중치막 1점, 그 부인인 정경부인이 입었던 대례복(원삼) 1점과 종대, 누비저고리 1점, 다래 1점, 도투락당기, 용잠 등 7점이 있다. 이 유물들은 중요민속자료 4호로 1965년 10월 12일에 지정되었다. 이번에 보존처리를 실시한 것은 대례복(원삼) 1점이다.

원삼은 조선시대 여자용 예복으로 사용되던 소매가 넓은 포이다. 원래는 중국에서 온 옷으로서, 통일신라의 당나라 복식 수용때에 우리나라에 들어 왔으리라 추정된다.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모양이나 바느질 방법에 있어 완전히 국속화하였다고 본다. 궁중에서는 왕비, 빈, 공주, 옹주가 각기 원삼의 색과 문양을 달리하여 사용하였고, 양반계급에서는 벼슬이 있는 사람의 부인들이 궁중출입을 한다거나, 예식이 있을 때 착용했으며, 서민층에서는 혼례 때 공주, 옹주의 원삼을 사용하였다.

조선조 말 원삼의 기본형태는 뒤가 앞보다 30cm 정도 길며, 넓은 소매와 소매 끝에 홍, 청 혹은 홍, 황색의 끝동과 흰색 한삼을 달았

다. 옷깃은 좌우가 대칭인 대금이며 무와 쇠는 없다. 옆선은 진동선 아래가 완전히 트여 있는데 7척 이상 되는 긴 띠를 등 뒤에 매어 늘어뜨린다.

원삼은 계급에 따라 왕비는 홍색 길에 노랑과 다홍색의 끝동이 달리고 봉문이 금박된 홍원삼을 입었고, 빈궁은 자적색 길에 노랑, 다홍색 끝동, 봉문이 금박된 자적 원삼을 입었다. 또 공주와 옹주, 내명부의 원삼은 연두색 길에 다홍, 노랑색 끝동이 달리고, 화문이 금박된 초록 원삼이었는데, 이것은 특히 서민층의 혼례복으로 사용이 허락되었다. 하지만 서민들이 혼례때 입는 원삼은 크기, 옷감의 질, 금박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대한제국 때 황후는 황색 길에 다홍과 남색 끝동을 단 황원삼을 입기도 했다.

원삼에는 어느 것이나 홍색의 띠를 두르었는데, 띠에도 역시 용문, 봉문, 화문으로 계급차를 두었다. 왕실에서는 원삼에 홍배를 붙였는데, 황후, 왕비가 국경일에 대례복으로 착용할 때는 5조룡의 운용문을 금실로 수놓은 보를 양어깨, 가슴, 등의 4곳에 달고, 보통 왕실의 경사에 소례복으로 착용할 때에는 쌍봉문의 금수 홍배를 달았다. 빈궁, 공주, 옹주의 경우도 쌍봉문의 홍배 2개를 달았다.

원삼은 대체로 안과 길 2점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초기에는 안과 길을 각각 따로 완성한 후 소매에 끼워 넣고 끝동 부분만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만들었고 길의 가장자리에는 안, 길 모두 5~6cm 정도의 남색선을 들렀으며, 앞길과 뒷길은 각각 안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차츰 길의 가장자리도 안감과 연결하여 봉합하게 된다.

그러나 보다 후대의 것은 오늘날 저고리 구

성방법과 같이 먼저 앞뒷길을 안감, 걸감과 붙여서 박은 후 앞길을 뒷길의 걸감과 안감 사이에 넣은 채 소매의 4겹 배대를 박아 뒤집는 방법으로 만든다. 또한 깃은 안팎에 각각 따로 다는 것이 일반적이나, 말기의 유품 중에는 안감, 걸감을 붙여서 깃을 단 후 그 위에 동정을 단 것도 있다.

원삼의 형태의 변화 또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시대가 올라가면 당의가 길어진 모양 같은 곡선이 나오나, 후대로 갈수록 앞길과 뒷길 자락은 직선화되어서 개화기의 원삼은 완전히 직선으로 나타난다.

1987년 반포된 예복을 살펴보면 원삼은 황제비는 황색이며 왕비, 왕세자비, 왕세손비는 소례복으로 다홍색 원삼을 입고, 대군비와 왕자비, 공비는 대례복으로 원삼을 입는다. 그리고 9품 이상의 관위있는 사람 부인의 대례복으로 화관과 원삼을 소례복으로 금박 없는 원삼을 입는다. 원삼을 입을 때 머리는 큰 머리나 띠구지 머리가 정석이지만, 화관이나 족두리도 썼다.

이단하 부인의 원삼은 유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시대가 오래된 것이다. 이 원삼과 가장 비슷한 형태를 보이는 유물로 고려대학교 소장인 초록적금문단원삼이 있다. 고대 소장 원삼은 1780년대 영조의 따님인 화순옹주가 입었던 것으로 초록색 수복자 문단에 포도와 동자문을 직금한 원삼이다. 화순옹주의 원삼도 소매 끝동에는 홍, 황의 색동과 백색의 적금선이 부착되었다. 안감에는 홍색단에 청선을 들렀다.

이단하 부인의 원삼 옷감은 수복자무늬의 석류, 국화문이 있는 녹색의 단종류이고, 제무늬로 금직을 짰다. 정면 어깨, 소매와 후면의

어깨, 소매, 배래 하단부에만 직금을 넣었으며 뒷면 배래 하단부의 직금은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여몄을 때 은근히 드러나 보이도록 미적 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원삼의 앞 뒤 길이의 차이는 10cm로 조선시대 말기 원삼의 앞, 뒤 차이가 30cm정도 나는 것에 비하여 볼 때 특징적이다. 옷의 치수는 화장(한삼 포함) 105cm, 고대 18cm, 옷길이 앞 117cm, 뒷길이 127cm, 진동 22cm, 수구 68, 걸쭉 나비 3.5cm, 앞깃 길이 18cm(전체 깃길이 54cm), 앞폭 23cm, 뒷폭 48cm, 색동홍색 4.3cm, 색동황색 2.7cm, 한삼 14cm, 흥배 25cm×29cm, 안단(남색) 5cm, 어깨 직금단 나비 27cm(앞, 뒤 포함), 몸판 직금단 나비 24cm, 배래 뒷부분 직금 10cm, 동정나비 3.5cm, 안깃나비 7.5cm, 안깃길이 60cm이다. 앞길의 아래 부분은 31cm, 뒷부분은 71cm이다.

금직단의 치수는 조금씩 다른데 어깨 부분은 전후 각각 13.5cm이고 전후면의 직금치수는 24cm 내외다. 그러나 앞면의 배래부분은 직금이 없고, 뒷부분의 배래는 직금이 있다. 뒷부분을 보면 흥배있는 중간부분부터 직금이 시작되는데 이 부분부터 옷감이 연결되어 있다. 안감은 다홍색이나 길부분만 다홍색을 넣었고 소매부분은 성긴 소색 무명으로 안을 넣었다.

이 원삼은 무게가 무겁고 옷의 형태를 잡기 위해 안팎감 사이에 창호지로 백비를 했다. 몸판은 창호지 한겹이고 소매부분은 창호지 두 겹을 넣었고, 몸판부분은 실로 창호지와 안감을 먼저 고정시켰다. 특히 창호지는 붓글씨가 쓰인 종이를 사용하였다. 안감에는 남색의 운문단으로 5cm 너비로 선을 들렀는데, 진

동선 아래 트임은 직선으로 마무리했다.

색동 끝동 또한 직금단을 이용했는데 무늬는 보문 중 보병과 연꽃무늬가 사용되었다. 한삼은 흰색 삼팔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말기의 원삼은 한삼부분까지 금직이나 금박을 한 것에 비해 이 원삼은 한삼부분을 금직이나 금박을 하지 않아 단아한 맛을 준다.

바느질법은 먼저 안감에 남색의 선을 풀로 붙인 후 바느질을 하고, 그 다음 길의 가장자리를 걸감에 연결한 것 같다. 그리고 소매 배래 부분에서 4겹으로 바느질되어 있다. 한삼은 안으로 8.3cm 제감으로 넘겨서 바느질했는데 한삼부분까지는 안팎이 2겹 바느질이 되어 있고 끝 색동부터는 4겹 바느질이다.

깃은 걸깃과 안깃을 이중깃으로 하고 안깃 위에 흰 명주로 동정을 앉혔다. 깃의 나비는 3.8cm이며 4mm 떨어진 부분에서부터 아주 고운 박음질을 하여 장식했다. 동정은 전체 나비 8cm로 명주이며 안으로 1cm 넘겼으며 창호지로 심을 넣었다. 걸깃 아래로 나타난 나비는 3.8cm이나 현재 상태는 후손들에 의해 손질이 된 듯하여 좌우 동정나비가 5~6cm 정도로 다르다.

이 원삼은 궁중의 하사품이 아닐까 짐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화려한 금직단의 사용이라든지, 또한 봉황흥배의 사용이다. 봉황흥배는 궁중의 비, 빈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 원삼에 달려 있는 흥배의 자수솜씨 또한 정교하다.

바탕천은 녹색단으로 암수 한쌍의 봉황이 엇갈려 마주보며 구름 사이로 날고 있는데 이와 아주 유사한 흥배가 허동화 자수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물론 그 흥배도 왕비가 사용한 것이었다고 전해 오고 있다. 이 흥배는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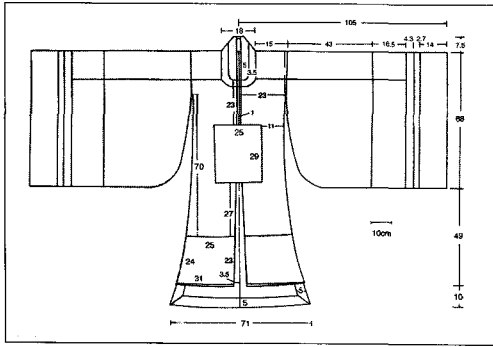


그림 1. 원삼의 전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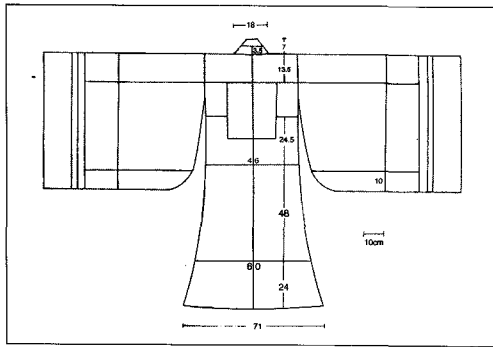


그림 2. 원삼의 후면 실측도

뒤로 한 쌍이 달려 있는데 등에 달려 있는 흥배는 제 위치인 듯하나 앞가슴에 달려 있는 흥배는 어느 때인지 후손에 의해 옮겨 달린 듯, 깃에서부터 20cm 아래에 달려 있으며 배 접이 되어 있지 않다.

사진에서 보면 처음 흥배가 달려 있던 자리는 겉깃 바로 아래였던 것 같다. 등부분의 흥배에는 성근 녹색 운문사로 배접되어 있다. 이 봉황 흥배는 중간색 계통의 색상이 주로 사용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바탕천의 녹색과도 잘 어우러져 전체적으로 우아한 느낌을 준다.

사용된 색상은 5방색을 이용하여 적, 청, 흑, 백, 황의 색상과 자수의 농담기법을 조화시켜 봉황이 마치 구름을 타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듯한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게 표현하였다. 봉황의 꼬리와 날개, 사이사이에 내비치는 구름들을 부드러운 곡선을 이용하여 자유스럽게 표현하였다. 등술 시점은 요즈음 저고리 바느질 시점처럼 가름술같이 보이거나 겹, 안감 시점의 방향은 입어서 오른쪽으로 넘겼다.

이 원삼은 현존하는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그 모양은 16~17세기의 장저고리에서 길이가 길어진 듯한 너그러운 아래 도련 모양을 보인다.

### 3.2 SEM에 의한 관찰

오염물 세척 후 유물에서 소량 떨어진 섬유편을 수거하여 전자주사현미경(FILIPPS 515, NETHERLAND)으로 관찰하였다. 관찰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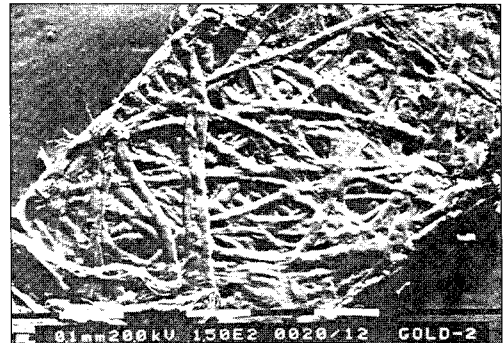


사진 6. SEM에 의한 원삼의 금사 상태(15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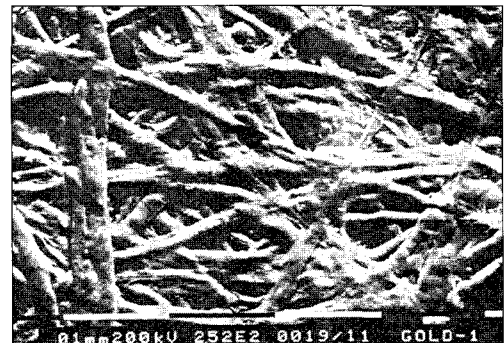


사진 6. SEM에 의한 원삼의 금사 상태(252배)

은 원삼의 금직사로 극히 일부뿐이었으며 금직사는 닥종이에 금박을 입힌 상태로 이물질의 부착은 심하지 않았고 섬유 원형이 어느 정도 잘 유지되어 있었다.

섬유의 배열은 무정형, 비배향형이나 수소결합 및 반테르발스힘에 의한 분자간력에 의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섬유와 섬유 사이의 공간으로 물 분자가 침투될 경우 기존의 수소결합이 파괴되고 새로운 형태의 수소결합이 형성되어 섬유의 배열이 흐트러지고 섬유와 금박간의 결합력이 파괴되어 금박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세척 및 보관시에 물의 침투와 고습도에 의한 금직의 변형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3.3 보관시의 주의사항

섬유류 유물 보관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직사광선과 인공광선을 포함한 빛에 의한 피해, 온도 및 습도의 조절, 마찰,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나무와 종이 지지대의 산도, 기타 관람 및 취급시에 발생하는 사소한 부주의들로부터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유물들을 보호해야 한다.

유물들은 빛에 대해서 특히 민감하다. 그 빛이 태양광이건 인공광이건 퇴색과 강도의 저하를 유발한다. 그 중 UV 복사광이 가장 심하고 가시광선도 무시할 수 없다. 빛의 강도와 노출시간이 섬유취화 정도를 결정한다. 빛에 의한 손상은 공기 중의 온도와 습도가 높고 먼지가 많을 때 더욱 가속된다.

UV 복사광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일광으로부터 UV광을 거의 대부분 제거할 수 있는 UV absorbing plexiglass를 창문에 삽입한다. 1/8"와 1/4"두께

의 plexiglass가 주로 사용되며, 유물이 나무들에 끼워 있을 경우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연한 황색을 나타내지만 관람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며 UV광 차단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유리 표면에 3M Scotchtint Solar Control Film을 붙인다. 이 screen은 aluminum 증기로 코팅된 0.015"두께의 유연한 polyester film으로 만들어졌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은 진회색(smoke, grey black)이며 태양열의 75%, 태양광의 82%, UV radiation의 99%를 반사시킨다. 이들의 사용으로 인공광선의 폐해도 줄일 수가 있다.

온도 및 습도의 조절은 18~20°C, 50±5%를 유지해야 하는데, 습도가 40% 이하로 떨어지면 섬유가 부스러지고, 70%를 넘으면 곰팡이의 생육이 촉진된다. 특히 식물성 섬유는 환기가 안되는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곰팡이의 공격을 받기 쉽다.

생육 초기에는 visible sign이 나타나기 전에 곰팡이 특유의 냄새가 나며, 후기에는 얼룩과 함께 섬유가 약해지고 심하게 변색되어 초록색, 황색, 흑갈색의 반점들이 생긴다. 이들은 수성세탁으로 지워질 수 없으며 표백에 의해서 없어질 수 있지만 식물성 섬유를 더욱 약화시키고 날염이나 염색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나무들에 끼워진 형태의 유물은 나무와 직접 닿은 부분에서 곰팡이가 자랄 수 있으며, 유리가 끼워진 상태라면 그 부분에서의 습기가 농축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유리, 섬유, 나무 사이에 공간을 주고 acid free support나 wood mat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물을 보관할 때 나무상자나, 서랍을 사용하는데 반드시 유물을 acid free paper나 alkaline buffered tissue paper, 미표백 musline cotton으로 싸서 보관해야 한다. 나무와 종이의 산도로 인하여 섬유가 손상을 받기 때문이다. scotch tape을 붙인다거나 plastic dry cleaning bag을 씌워 놓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접착제가 늘어 붙거나 film이 점차 열화되고 정전기 발생에 의해서 오염 부착이 늘어나고 고온, 고습하에서 곰팡이의 생육을 촉진시키므로 덧개가 필요할 경우, 깨끗한 muslin cotton이나 polyester sheet을 쓰면 적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축연신 film에 의한 진공포장을 실시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이단하 부인의 원삼은 봉황문 흉배가 부착된 것으로 보아 왕실에서 정경부인에게 수여한 하사품일 것으로 사료되며 직금에 의한 문양의 배열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칭부분적으로 이루어져 화려한 느낌보다는 단아하게 정돈된 느낌을 나타내고 있다.

뒷면 아래의 배래부분에 있는 문양은 손의 여밈으로 인해 생기는 은근한 미적 감각을 나타내며, 흉배에서는 곡선을 이용한 부드러움 속에서도 비상하는 봉황의 기백과 주위의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섬유질 및 피혁 유물들은 재질이 유기질이므로 여러가지 손상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질의 경화, 충균에 의한 결실 등이 발생한 부위는 원상으로 복원될 수 없는 재질의 구조적 취약성이 있으며, 또한 환경내 각종 오염인자

에 의해서도 유기질 물질은 유물 표면에 발생된 오염 및 변색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유기질 문화재의 보존처리는 주로 유물의 표면에 발생된 오염이나 변색부위의 제거에 국한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재질상태가 양호할 때에만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유물 재질 내부의 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에 대한 보존처리는 세계적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유기질 물질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물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제의 선정, 세척방법의 강구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물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보존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유기질 유물의 보존을 위해서는 유물 내부의 구조적 변화를 예방하는 보존환경의 설정이 중요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섬유질 및 피혁류 등 유기질 문화재의 보존환경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밀성이 우수한 이축연신 비닐필름에 의한 포장과 더불어 내부에 온습도를 제어할 수 있는 조습제를 투여하면 온습도 조절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도 어느 정도 포장 내에서 적정 습도의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 參考文獻

1.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4, 95-103.
2. 김성연, 세제와 세탁의 과학, 교문사, 1993, 223-32
3. 배상경, 동래 정씨 흥곡공묘 출토유물의 보존처리 보고서, 경기향토사료집 제 5집, 1992, 32-37

4. 배상경, 정충신 장군 갑옷과 울산 이휴정 소장  
봉황문단 직령포에 실시한 보존처리 연구,  
보존과학회지 제 3권 제 1호, 1994, 23-30
5.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  
부, 1975, 454-455
6. 중요민속자료 복식보존처리 보고서 (1992-  
1994), 문화재관리국, 1994, 73-90
7. Margaret Fikioris, Textile Conservation for  
Period Room Settings in Museums and Historic  
Houses, Preservation of Paper and Textiles of  
Historic and Artistid Value II, ACS, 1981,  
253-267
8. Jentina E. Leene, Textile conservation, IIC,  
London Butterworths, 1972, 137-152
9. Sheila Landi, The Textile Conservator's Manual,  
Butterworth-Heinemann, 1992, 37-40